

농업계 고등학교 학생의 자기효능감, 사회적 지원, 지각된 유용성이 진로결정에 미치는 영향*

유병민^a · 박혜진^{b**}

^a 건국대학교 교육공학과(서울시 광진구 능동로 120)

^b 강릉원주대학교 기초교육원(강원도 강릉시 죽헌길7)

The Effects of Career Decision on Perceived Usability, Social Support, Self-efficacy at Agricultural High School Student

Byeong Min Yu^a · Hye Jin Park^b

^a Educational Technology Konkuk University, Korea

^b Faculty Fundamental Education, Gangneung-Wonju National University, Korea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verify the influence between the variables affecting the Agricultural high school students in career decision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 First, self-efficacy($\beta=.14$, $p=.000$), perceived usefulness($\beta=.52$, $p=.000$) and social support($\beta=.31$, $p=.000$) were found to be significant according to career decision of agricultural high school student the result of analysis of multiple regression. all regression coefficients were positive. second, perceived usefulness($\beta=.52$) was found on the most influential of the three variables. Finally, when students perform studies related to agro-industry can be called self-efficacy are important factors. also The real working environment for the agro-industrial field placement, explore the world of work, ways of understanding reality based on what they learned at school such as university-industry linkage will also be established.

Key words: career decision, perceived usability, social support, self-efficacy, agricultural high school

1. 서 론

진로결정은 한 개인이 성장하면서 중요한 과제이자 자신의 능력, 흥미, 적성, 성격, 가치관 등을 명확하게 분석하고 자신이 원하는 진로를 선택하여 결정하는 일이다. 청소년기 학생들의 경우 성인기로 넘어가기 전에 진로 혹은 직업의 선택과 결정은 전 생애에 걸쳐 가장 중요한 발달과업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은 새로운 진로에 대한 분석과 탐

색이 요구되며, 개인이 선호하는 진로를 구체화하고 바람직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사회적 지원이 수반되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 청소년기 학생들은 입시위주의 교육 환경과 진로선택에 대한 교육 및 지도의 부족으로 인해 자신의 적성, 능력, 흥미 등 많은 개인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진학하려는 대학, 학과, 전공을 선택한다. 이러한 경향은 진로문제로 이어지며 청소년기 학생들은 진로에 대한 갈등과 고민을 많이 하게 된다(최은영, 2011).

주요어: 자기효능감, 사회적 지원, 지각된 유용성, 진로결정, 농업계 고등학교

* 이 논문은 2015년도 건국대학교 KU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한 논문임.

** 교신저자(박혜진) 전화: 033-640-1668 e-mail: phj4858@gwnu.ac.kr

청소년기 학생들의 올바른 진로결정을 위해서는 진로결정에 대한 자기효능감과 사회적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 자기효능감은 개인이 특정 과제를 수행할 때 필요한 능력에 대한 믿음으로 진로결정과 진로성취에 중요한 인지적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진로와 관련된 결정, 선택한 진로에서 자신이 성공할 것이라는 가정 하에 자기효능감을 중요한 변인으로 포함하고 있다(Hackett & Betz, 1981). Taylor & Betz(1983)는 진로과정에서 자신의 능력에 대한 자신감을 의미하는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진로를 탐색하려는 의도와 높은 상관성이 있다고 밝혔다(Betz & Vuyte, 1997). 사회적 지원은 일반적으로 중요한 타인으로 얻어지는 여러 가지 형태의 지각된 자원으로 타인과의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서만 충족될 수 있다. 이와 같은 사회적 상호작용 내에서 사회적 지원은 인간이 적응 및 정신적·신체적 건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윤소연, 1993). 특히 청소년기 학생들은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성장하고 성숙하는 사회화 과정을 밟는 시기이며, 사회화 과정은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이루어지는 중요한 과정이다(조명실, 2007). 이 시기의 진로탐색은 사회적 지원과 개인의 목표에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Rogers, Creed, & Glendon, 2008) 교사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사회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중요한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진로와 관련해서는 개인이 진로를 결정하고 선택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정서적·물질적 지원 등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지원을 말한다. 진로와 관련해서 사회적 지원이 관심요인으로 부각되는 것은 진로문제가 개인의 내적 요인뿐만 아니라 개인을 둘러싸고 있는 외적 요인에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고태용, 2008). 청소년기의 학생들은 진로결정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교사이며, 교사는 학생이 진로결정을 하는데 주된 사회적 지원자가 되어야 한다. 여러 형태의 사회적 지원 중 애착, 사회적 통합, 가치의 확산, 신뢰할 수 있는 유대감, 지도, 지침의 획득(Weiss, 1974)은 청소년기 학생들의 진로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회적 지원이라고 할 수 있다. 교사의 사회적 지원 외에 부모와 안정적인 애착 형성과 지원은 효율적인 진로결정을 돕는 것으로 밝혀졌다(한수현, 2003).

지금까지 진로에 대한 패러다임은 학교교육에만 국한되어 진로지도 및 진로교육이 진행되어 왔지만, 앞으로는 평생교육 차원에서 한 개인의 생애발달에 걸쳐 다루어지는 중요한 결정으로 작용하게 된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과 사회적 변화에 따라 청소년기 학생의 바람직한 진로결정을 할 수 있게 사회적 지원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등을 높일 수 있는 방안 및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진로에 관한 기존 선행연구에서는 진로성숙(주석진, 2013; 조명실, 2007), 자아존중감(Taylor & Berz, 1983; 김혜정, 2014; 오선영, 2012), 진로장벽(박성실, 2012; 유수복, 2013; 신선임 & 김계현, 2012) 등의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다양한 진로결정에도 불구하고 농업계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농업계 고교 산업연계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을 대상으로 향후 진로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학교 현장에서 진로지도 및 선택을 위한 시사점을 제공하고, 농업계 고등학교 학생들의 진로결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연구를 실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2. 이론적 배경

2.1. 자기효능감(Self-efficacy)

자기효능감은 개인의 일반적인 성격적 특성의 개념이 아니라, 특정 과제와 밀접하게 관련된 인지적 개념으로(현정환, 1993) Bandura(1977)의 사회적 학습이론(Social Learning Theory)에서 처음 주장되었다. 사회적 학습 이론은 인간과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한 행위가 습득되는 과정으로 과업수행에 대한 자신감인 자기효능감에 따라 개인의 인지처리과정을 거쳐 새로운 학습행위로 나타나게 된다. 자기효능감은 애매모호하고 예측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개인이 행동을 잘 조직하고 이해할 수 있는가에 대한 판단으로 정의하고 있다(Bandura, 1977).

자기효능감은 개인의 전체적인 수행능력에 대한 믿음으로부터 초래되는 것으로서 과제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요구되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개인적 평가이다(Wood, Mento, & Locke, 1987). 또한 현재 개인이 가지고 있는 특정 능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능력을 어느 정도 발휘할 수 있는가를 판단하는 것이다(Vealey, 1986). Schunk(1982)는 실무적 측면에서 자기효능감을 목표에 대한 업무수행에 있어 개인의 능력에 대한 판단으로 보았으며, 교육적인 측면에서는 학습을 통한 자신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라고 정의하였다. 결국 자기효능감은 개인이 선택한 문제나 활동을 스스로 해결하고 수행해나갈 수 있는 능력과 긍정적 결과에 대한 믿음이라고 할 수 있다.

Bandura(1977)는 자기효능감이 두 가지 기대를 통해 개인의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첫 번째로 효능적 기대로서 개인이 어떤 행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가에 대한

기대이다. 두 번째로 결과적 기대로서 어떤 행동이 이후에 확실한 결과를 낳을 것이라는 예측이다. 효능적 기대와 결과적 기대가 둘 다 존재할 때 개인의 특정 행동은 유발되고 선택된다. 자기효능감은 성공적 경험, 대리적 경험, 언어적 설득, 생리적 상태 및 정서적 상태의 정보원에 의해 영향을 받아 형성된다(Bandura, 1977). 이들 정보원 중에서 성공적 경험이 자기효능감 형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 Bandura(1982)는 자기효능감이 개인의 직접적인 성공경험, 타인의 성공경험의 관찰을 통한 대리적 학습, 멘토나 개인이 속한 조직 내에서 시스템을 통한 격려로 인한 사회적 설득 및 개인의 정서적 상태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다고 하였다. 또한 자기 자신을 긍정적으로 평가할수록 자기효능감은 촉진될 수 있다(Zhou, 2015). 자기효능감은 개인이 선택한 특정 활동에 노력을 기울이고, 얼마만큼 지속하느냐의 여부에 따라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자기효능감이 높은 사람들은 개인의 삶과 관련하여 미래지향적인 생각을 가진다고 할 수 있으며(홍현경, 2012), 활동에 대한 결과를 통제할 수 있는 자신의 능력을 높게 판단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개인이 자신의 특성에 대해 가치를 부여하는 자기효능감은 특히 청소년기의 긍정적인 적응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박지은, 2006).

2.2. 사회적 지원(Social Support)

사회적 지원은 1970년대 중반 예방심리학(Preventive Psychology)이 대두되면서 스트레스와 적응간의 관계를 조절하는 핵심적인 변인으로 주목받기 시작했다(천성수, 2009). 사회적 지원은 타인에 의해 개인이 보호와 존경받고 있다고 믿게 함으로써 상호책임을 갖고 네트워크에 소속되어 있다고 믿게 하는 것이다(Cobb, 1976). 또한 타인과 집단 및 지역사회에 의한 사회적인 유대관계를 통해 개인이 받을 수 있는 지원이라고 할 수 있다(Lin, Ensel, Simeone, & Kuo, 1979). 즉, 사회적 지원이란 일반적으로 중요한 타인으로부터 얻어지는 여러 가지 형태의 지각된 자원이라고 정의내릴 수 있다(최용성 & 최광선, 2000).

House(1981)는 사회적 지원을 정서적 관심, 도구적 도움, 정보적 지원을 포함한 상호 수혜적 거래라고 했으며, Thoits(1982)는 애정, 소속감, 안정감, 정체감 등을 포함한 개인의 기본적인 욕구가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충족되는 정도라고 정의하였다. 사회적 지원은 개인에게 심리적인 안정감을 제공해주고 사회 구성원들에게 애정을 받고 있다고 느끼게 해주는 정서적 지원(emotional support), 개인이 속해 있는 집단

속에서 변화에 적응할 수 있게 해주는 정보, 조언, 지식 등을 의미하는 인지적 지원(cognitive support),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도와주는 물질적 지원(tangible support)으로 구분할 수 있다. 종합해 보면 사회적 지원의 주체는 대부분이 개인이며, 목적은 특정 도움을 제공받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사회적 지원은 특정 조직이나 관계 속에서 상호작용을 통한 지원, 소속감, 애정, 조언, 정보 등 개인이 받을 수 있는 물질적·정서적 지원을 포함한다고 할 수 있다.

사회적 지원은 개인에게 의미 있는 타인으로부터 받는 것이 중요하며, 특히 청소년기 학생들의 심리와 행동 형성과정에서 그 영향력은 매우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김의철 & 박영신, 1999). 교사와 학생관계에 초점을 두고 보면 청소년기 학생들은 교사로부터 사회적 지원을 많이 받을 때 학교생활을 포함하여 전반적인 생활만족도가 높았고, 교사와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는 낮았다(박아청, 2007). 이러한 결과는 교사와 학생의 관계가 청소년기의 정신건강과 삶의 질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준다(박영신, 2007). 사회적 지원과 자기효능감 간의 관계가 밀접하다는 것은 선행연구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다(김단희, 2002). 가정과 학교의 인적 구성원간의 접촉이 성격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부모, 교사의 사회적 지원은 자기효능감과 정적 상관관계가 있다고 밝혀졌다(오선옥, 2001). 이처럼 주변의 의미있는 사람으로부터 받는 사회적 지원은 청소년기의 적응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윤미경, 1997).

농업계 고등학교는 일반계 고등학교와 달리 졸업 후 진로 결정에 대해 교사가 많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청소년기 학생들은 자신의 진로를 계획하고 수립하며, 수립된 진로를 결정하고 결정된 진로에 관하여 사회적 지원과 인정을 받고 싶어 한다(김용재, 2014). 또한 사회적 지원은 진로선택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실천하는데 필요한 원동력인 자기효능감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김용재, 2014). 이 시기 학생들은 교사의 사회적 지원 속에 스스로를 긍정적으로 평가 받으려는 욕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졸업 후의 취업, 진로, 삶의 질과 깊은 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2.3. 진로결정(Career Decision)

진로란 한 개인의 전 생애동안 일과 관련하여 체험하는 모든 활동으로써 Tolbert(1980)는 “생애 직업발달을 뜻하는 포괄적인 용어”라고 정의하였다. 즉, 진로는 개인이 종사하는 직업

의 계열을 의미하며, 장래 희망과 포부를 결정하고 그것을 성취하기 위한 방법을 구상하고 추진하는 모든 과정을 의미한다(최은영, 2011). Krumboltz(1982)는 진로결정을 ‘훌륭한 선택’의 연속적 과정으로 설명하였다. 훌륭한 선택의 연속적 과정이란, 바람직한 진로교육을 통해 진로설계와 계획이 장기간에 걸쳐 진로발달로 이루어진 결과이다. 진로를 결정해야 할 시기에 합리적으로 진로를 결정할 수 있게 된 상태를 의미한다(강선영, 1996). 진로결정의 기간은 진로를 결정하기 전, 진로를 결정하는 과정, 진로를 결정한 후에 처리해야 할 모든 문제를 뜻하며, 진로결정은 진로 심리학에서 가장 많이 연구된 주제 중 하나이다(Betz, 1992; Kelly & Lee, 2002). 이렇듯 진로결정은 중요한 의사결정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Dati & Levin, 2014). 진로결정은 개인의 적성과 흥미, 노력, 가치관 등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다양한 직업세계에서 요구되는 요인을 분석하여 자신의 특성에 적합한 진로를 선택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진로결정은 한 순간에 내려지는 결정이 아닌 어린 시절부터 청소년기를 거쳐 성인 초기까지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Ginzberg, Ginsburg, Axelrad, & Herma, 1951). 즉, 개인의 신체적·정신적 발달과 같이 진로에 대한 지식과 태도 및 기능도 어려서부터 발달하기 시작하여 청소년기에 성숙해지고 진로결정을 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은 일의 가치를 발전시키고 직업정체성을 구체화하여 결정하는 평생의 과정에 해당한다(김충기, 1988).

고등학생의 진로결정은 졸업 후 전공을 선택하거나 앞으로의 직업선택과 미래의 삶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교육현실은 진로지도가 미흡하거나 진로문제, 직업선택 등을 다룰 때 학생이 자기주도적 진로결정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의 진로지도와 사회적 지원이 부족하고 할 수 있다. 특히 농업계 고등학교에서는 학생들의 진로결정은 미래지향적이고 바람직한 선택이 될 수 있도록 교사의 사회적 지원이 중요한 변인이라고 할 수 있다.

3. 연구방법

3.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경상남도 소재 A고등학교에서 농산업분

〈표 1〉 연구대상의 성별 및 학년분포

측정항목		응답	백분율(%)
성별	남	157	66.81
	여	78	33.19
	계	235	100.00
학년 (결측값=1)	1학년	78	33.19
	2학년	77	32.77
	3학년	80	34.04
	계	235	100.00

야의 진출을 촉진하고자 운영되는 역량강화 프로그램인 농업계 고교 산업연계 교육프로그램의 참여 학생이다. 총 237명의 학생 중 불성실 응답 2명을 제외한 235명(99.16%)의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성별 분포는 남학생 66.81%(157명), 여학생 33.19%(78명)로 나타났다. 학년별 분포는 1학년 33.19%(78명), 2학년 32.77%(77명), 3학년 34.04%(77명)로 나타났다.

3.2. 연구도구

3.2.1. 자기효능감

본 연구에서 자기효능감을 측정하기 위해 박성열, 최승철, 차승봉, 김재선, & 송민영(2011)의 연구와 박영용 & 김진모(2006)의 연구와 Park(2009)의 연구에서 사용한 측정도구를 본 연구에 맞게 수정 후 사용하였다. 문항은 학습용어에 대한 이해도, 학습관련 지식 습득, 효과적 학습방법 인지, 학습 자신감, 어려운 문제에 대한 두려움 등을 묻는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각 문항은 7점 척도이며, 신뢰도는 .942로 나타났다.

3.2.2. 지각된 유용성

지각된 유용성은 농업계 고교 산업연계프로그램에 참여가 학생들의 학습능력의 향상과 영농기술 향상에 유용하다는 인식 정도를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박민기, 박성열, & 차승봉(2014)과 박성열, 최승철, 차승봉, 김재선, & 송민영(2011) 및 Park(2009)의 연구에서 사용한 측정도구를 본 연구에 맞게 수정 후 사용하였다. 문항은 전반적인 유용성, 영농기술과 지식 향상, 영농문제해결에 도움, 학습능력 향상, 영농기법 적용 등을 묻는 질문으로 7점 척도이며, 신뢰도는 .917로 나타났다.

3.2.3. 사회적 지원

정보적 지원과 실질적 지원, 교육기관 차원의 체계적 조직 지원과 평가, 보상 체계를 의미하는 사회적 지원을 측정하기 위해 김용재(2014)와 백부천(2013)의 연구를 바탕으로 설문문항을 구성하였다. 문항의 내용은 문제해결 지원, 현업적용을 위한 정보 제공, 목표설정에 대한 현실적 도움, 성공에 대한 보상지원, 지속적 자료제공 등 본 연구에 맞도록 수정 후 7점 척도로 구성하여 사용하였으며, 신뢰도는 .941로 나타났다.

3.2.4. 진로결정

개인의 진로결정을 측정하기 위하여 김용재(2014)의 연구에서 진로확신과 신소영 & 권선영(2014)의 연구에서 사용된 진로결정 문항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 맞게 문항을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문항은 진로결정의 도움 필요 정도, 관심진로에 대한 선택 고민, 진로결정 후 편안함, 진로결정에 대한 확신, 진로결정을 타인에게 설명하는 등의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문항은 7점 척도이며, 신뢰도는 .934로 나타났다.

3.3. 농업계 고교 교육훈련프로그램 내용

본 연구는 농림축산식품부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농산업 분야의 인력육성을 위한 농업·농촌 교육훈련지원사업인 농업계 고교 산업연계프로그램에 참여경험이 있는 학생들을 주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농업계 고교 산업연계 프로그램 종료 후에는 운영계획서를 바

〈표 2〉 농업계 고교 산업연계프로그램 내용

교육과정	세부내용
실습/현장실습	- 품목별 학교 실습 - 현장실습(WPL) 교육
진로탐색/비전스쿨	- 직업세계 탐색 프로그램 - 전공·품목별 동아리활동 지원 - 농산업계의 자격증 취득 지원 - 농산업 Job-Map 프로젝트
승계능, 후계능 양성	- 예비 승계능, 후계능 특화 프로그램
산업체(취업체) 연계프로그램	- 농산업체 및 학교 간 취업 연결교육 프로그램
현장연계 교과목개발	- 마이스터고 교과목 개발 및 적용
창조미래인력 양성	- 학교별 프로그램 제시(학교자율과제)

* 출처: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내부자료(2014).

탕으로 제출한 교육운영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일정 기준에 따른 평가 및 환류가 이루어진다. 농업계 고교 산업연계프로그램의 내용은 <표 2>와 같다.

3.4. 자료의 처리 및 통계방법

본 연구를 위해 수집된 자료의 분석은 SAS ver 9.1 통계 패키지를 이용하였다. 분석기법은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분석을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기술통계로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를 확인하였다. 각 변인에 대한 Cronbach's α 계수를 바탕으로 조사도구에 대한 신뢰성 분석을 실시하였고, 성별에 따른 각 변인의 차이 검증을 위해 t-test를 수행하였으며, 진로결정 영향요인 분석을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4. 연구결과

4.1. 성별에 따른 변인 간 t-test

농업계 고교 산업연계교육프로그램은 농산업 분야의 후계 농업 인력을 육성하고자 지원하는 것으로 농업계 고등학교 학생들이 농산업 분야에 진출하고자 하는 결정을 촉진시키기 위해 운영되는 농산업 역량강화 프로그램이다. 농산업분야의 진로결정 요소에 성별이 어느 정도의 영향력이 있다는 선행연구(김학섭, 2015)를 바탕으로 성별에 따른 주요 변인 간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표 3>의 성별에 따른 주요 변인 간의 차이에 대한 결과를 살펴보면, 자기효능감($t=-.81(p=.42)$)과 지각된 유용성($t=-.84$

〈표 3〉 성별에 따른 주요 변인 간 t-test 결과

변인		N	M	SD	DF	t	p
자기효능감	남	157	4.97	1.43	233	-.81	.42
	여	78	5.12	1.11			
지각된 유용성	남	157	5.22	1.24	233	-.84	.40
	여	78	5.36	.97			
사회적 지원	남	157	5.27	1.28	233	-.33	.74
	여	78	5.32	1.08			
진로결정	남	157	5.06	1.26	233	-1.05	.29
	여	78	5.20	1.01			

($p=.40$), 사회적 지원($t=-.33(p=.74)$)과 진로결정($t=-1.05(p=.29)$)이라는 4개의 모든 변인에서 'Ho: $\mu_1 = \mu_2$ '는 $\alpha=.05$ 에 있어서 기각되지 않았다. 즉, 성별에 따라 자기효능감, 지각된 유용성, 사회적 지원, 진로결정의 변인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고 할 수 있다.

4.2. 진로결정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본 연구는 농산업 분야의 인력육성을 위해 지원되는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가 농업계 고등학교 학생들의 진로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따라서 농업계 고등학교 학생들의 자기효능감과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지각된 유용성, 그리고 학교차원에서의 사회적 지원이 진로결정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하고자 다중회귀분석을 바탕으로 연구결과를 제시하였다.

4.2.1. 정규성 및 다중공선성 점검

다변량정규성을 확인하여 정규분포 가정 충족에 대한 검토하였다. 측정변인들의 왜도는 1 미만으로, 첨도는 2 미만으로 확인되었다. 정규성 검증 결과는 <표 4>와 같다.

세 개 이상 변인들 간의 다중공선성을 점검하기 위하여 독립변인들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진로결정과 지각된 유용성이 85 이상의 높은 상관관계인 것으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결과는 <표 5>와 같다.

<표 4> 변인들의 평균 및 왜도, 첨도

변인	M	SD	왜도	첨도
1 진로결정	5.31	1.18	-.56	.01
2 자기효능감	5.02	1.33	-.67	1.37
3 지각된 유용성	5.27	1.15	-.45	.01
4 사회적 지원	5.29	1.22	-.77	1.12

<표 5> 상관관계 분석 결과

변인	1	2	3	4
1 진로결정	1.00			
2 자기효능감	.68***	1.00		
3 지각된 유용성	.87***	.67***	1.00	
4 사회적 지원	.82***	.61***	.82***	1.00

* $p<.05$, ** $p<.01$, *** $p<.001$

선행연구에서 다중공선성 판단을 위한 상관관계의 기준 값을 .85 이상으로 보는 견해와 .90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박혜진, 유병민, & 차승봉, 2015; 이학식, 임지훈, 2008). 또 다른 지표인 허용값(공차한계: tolerance)과 분산확대요인(VIF)을 바탕으로 독립변인 간의 다중공선성을 판단하였으며, 결과는 <표 6>과 같다.

<표 6>의 결과 진로결정 관련 변인들의 허용값들은 최소 .29에서 최대 .58 사이의 값으로 나타나 기준 값인 .10보다 큰 값을 가지고 있다. 또한 VIF는 1.86에서 3.49 사이의 값으로 나타나 기준 값인 10이하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다중공선성은 문제가 없다고 판단된다.

4.2.2. 진로결정 관련 변인 간 다중회귀분석 결과

농업계 고교 산업연계프로그램에서 자기효능감과 지각된 유용성, 그리고 사회적 지원이 참여 학생들의 진로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수행하였으며, 결과는 <표 7>과 같다.

<표 7>의 다중회귀분석 결과에서 종속변인인 진로결정에 대한 F 값은 314.00이며, p 값은 .001보다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회귀식에 대한 설명력(R^2)은 0이라는 영가설($H_0: \beta_1 = \beta_2 = \dots = \beta_k = 0$)이 기각하게 되므로 회귀식이 종속변인을 설명하는데 유용하다고 할 수 있다. 다중회귀식은 'Y=.28+.12X₁(자기효능감)+.54X₂(지각된 유용성) +.30X₃(사회적 지원)'으로 기술하였다. R^2 은 .803으로서 자기효능감과 지각된 유용성, 사회적 지원의 3개의 독립변인이 투입된 결과 종속변수(진로결정)를 80.3%로 설명하고 있다.

<표 6> 다중공선성 점검 결과

종속변인 (진로결정)	독립변인(진로결정 영향 요인)		
	자기효능감	지각된 유용성	사회적 지원
tolerance	.58	.29	.33
VIF	1.86	3.49	3.07

<표 7> 진로결정 관련 다중회귀분석 결과

Source	df	SS	MS	F
Model	3	262.25	87.42	314.00***
Error	231	64.31	.28	
corrected total	234	326.56		

* $p<.05$, ** $p<.01$, *** $p<.001$

〈표 8〉 진로결정 관련 다중회귀분석 계수

변인	B	SE	β	t	p
intercept	.28	.17	0	1.65	.100
자기효능감	.12	.04	.14	3.46	.000
지각된 유용성	.54	.06	.52	9.58	.000
사회적 지원	.30	.05	.31	6.10	.000

$R^2=.803(Adj=.801)$

〈표 8〉에서 나타난 진로결정 관련 각 변인(자기효능감, 지각된 유용성, 사회적 지원)의 유의성 검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자기효능감($\beta=.14, p=.000$)은 다른 두 변수인 지각된 유용성과 사회적 지원이 회귀식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유의적이며, 정적인 효과가 있다. 그러므로 농업계 고교 산업연계프로그램 내용과 관련하여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자기효능감이 낮을 때 보다 농산업분야로 진로가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지각된 유용성($\beta=.52, p=.000$)에서 다른 두 변수인 자기효능감과 사회적 지원이 회귀식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유의적이며, 정적인 효과가 있다. 지각된 유용성의 경우 진로결정에 다른 두 변인보다 많은 영향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농업계 고교 산업연계프로그램 내용에 대하여 학생들의 지각된 유용성이 높을수록 지각된 유용성이 낮은 경우보다 진로의 방향이 농산업분야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셋째, 사회적 지원($\beta=.31, p=.000$) 또한 다른 두 변수인 자기효능감과 지각된 유용성이 회귀식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유의적이며, 정적인 효과가 있다. 따라서 사회적 지원이 좋을수록 사회적 지원이 열악할 때보다 농산업분야로의 진로결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국가에서 지원하고 있는 농업계 고교 산업연계 프로그램의 참여 학생들의 진로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간의 영향력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특히, 자신의 농산업 관련 학습에 대한 자기효능감과 프로그램에 대한 지각된 유용성, 농산업의 직무와 변화에 인지적, 도구적 지원 요소인 사회적 지원이라는 변인들과 진로결정과의 관계성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에 따라 결론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농업계 고교 산업연계프로그램 참여 학생들의 진로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자기효능감($\beta=.14, p=.000$), 지

각된 유용성($\beta=.52, p=.000$), 그리고 사회적 지원($\beta=.31, p=.000$)으로 3개의 변인 모두 정(+)적인 효과가 있었다. 자기효능감과 진로관련 변인들의 관계를 분석한 김희수, 홍성훈, 윤은중(2005)의 연구에서도 청소년기 학생들의 자기효능감과 진로관련 변인들은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다고 밝혔다. 즉, 청소년기에 자기효능감을 높이는 것은 진로결정과 진로정체감을 형성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다. 윤광현(2013)은 특성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사회적 지원이 진로결정 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가족지원 및 사회지원이 많을수록 진로결정수준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높은 청소년일수록 진로와 관련된 준비행동을 수월하게 해나가고, 더 나은 진로태도성숙이 이루어진다(김수리, 2004). 이처럼 고등학생의 진로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사회적 지원이 크다고 할 수 있으며, 학생들의 진로결정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할 수 있다. 따라서 농업계 고교 산업연계프로그램 성공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농산업 분야로의 진로결정에 긍정적인 작용을 하는 세 개의 변인을 고려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둘째, 유의한 변인인 자기효능감, 지각된 유용성, 사회적 지원 중 지각된 유용성($\beta=.52$)이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농산업과 관련하여 현장실습중심과 진로탐색 등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에 대한 유용성이 높을수록 농업계 고등학교 학생들은 농산업 분야로의 진로결정에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농업계 고교 산업연계프로그램이 유용하다고 판단(남 M=5.22, 여 M=5.36)할 때, 농산업 분야로의 진로에 대한 촉진 역할을 하고자하는 소기의 목적을 어느 정도 달성한 성공적인 프로그램이라고 볼 수 있다. 김지혜(2005)는 계열별 진로준비행동 점수를 비교한 연구결과, 인문계 고등학생보다 실업계 고등학생의 진로준비행동 점수가 다소 높았다고 밝혔다. 이러한 결과는 인문계 학생들보다 이전에 실업계로 불리었던 전문계나 농업계 학생들이 대학교 진학 외에도 직업선택을 위한 실질적인 준비행동을 수행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농업계 고등학교에서 진로탐색에 관한 실질적이고 유용한 프로그램이 제공될 때 학생들은 자신의 진로탐색 및 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학생들이 농산업과 관련된 학업을 수행할 때 자기효능감도 중요한 변인이라고 할 수 있다. 실제 농산업 현장의 직무환경에 대한 현장실습, 직업세계탐색, 산학연계 등

의 학교에서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현실을 이해할 수 있는 방안도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청소년기 학생들은 사회적 지원을 많이 받는다고 지각할수록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높게 형성된다(조명실 & 최경숙, 2007). 이처럼 학교에서의 교육적 지원, 교사의 사회적 지원 등이 진로결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또한 직무에 대한 적응과 문제 상황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등의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사회적 지원 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정책이나 제도가 마련될 필요성이 있다.

참고 문헌

1. 강대식, 김정겸, & 정희인. (2011). 대학 원격교육환경에서 학습자의 정의적 특성, 학습실재감, 몰입감, 학습만족도간 구조적 관계 분석. *교육정보미디어연구*, 17(1), 133-150.
2. 강선영. (1996). 아이덴티티(Identity) 발달 수준과 진로미결정 요인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3. 고태용. (2008). 사회적 지지,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진로장벽이 대학생들의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목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4. 김단희. (2002). 부모애착과 자기효능감이 중학생의 사회적지지 지각에 미치는 영향. 계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5. 김수리. (2004). 부모지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및 역기능적 진로사고가 청소년의 진로발달에 미치는 영향. 홍익대학교 박사학위논문.
6. 김용재. (2014). 마이스터고등학교 학생의 진로 경로 및 진로결정 행동분석. 충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7. 김의철, & 박영신. (1999). 한국 청소년들의 심리 행동 특성의 형성: 가정, 학교, 친구, 사회 영향을 중심으로. *교육심리연구*, 13(1), 99-142.
8. 김지혜. (2005). 고등학교 학생들의 진로결정수준, 진로준비행동 및 진로의사결정 유형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9. 김충기. (1988). 진로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과 지도 대책. *성공논총*, 19, 57-113.
10. 김혜정. (2014). 대학생들의 부모애착, 진로성숙도, 자아존중감이 취업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대구한의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1. 김희수, 홍성훈, & 윤은종. (2005).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과 자기효능감 및 진로결정과의 관계. *한국청소년연구*, 16(2), 37-65.
12. 박민기, 박성열, & 차승봉. (2014). 페이스북을 활용한 대학수업에서 상호의존성, 동료간 친밀성, 지각된 유용성이 학습태도와 학습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4(10), 23-46.
13. 박성실. (2012). 대학생의 정서지능과 진로결정의 관계에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장벽의 매개효과. 동아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4. 박성열, 최승철, 차승봉, 김재선, & 송민영. (2011). 기술수용모델(TAM)을 이용한 농업교육프로그램 참여의향도 분석과 향상 방안. *농업경영·정책연구*, 38(3), 475-502.
15. 박아청. (2007). 청소년의 심리적 안녕감에 대한 실태와 이를 위협하는 요소. 한국교육심리학회 연차학술대회 논문집, 1-16.
16. 박영신. (2007). 한국 청소년의 삶의 질과 인간관계. 한국교육심리학회 연차학술대회 논문집, 85-125.
17. 박영용, & 김진모. (2006). 기업 리더십교육 프로그램 참여자의 학습전이와 영향요인. *농업교육과 인적자원개발*, 38(4), 215-239.
18. 박지은. (2006). 사회적 지지와 자기효능감 및 진로준비행동의 관계. 홍익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 박혜진, 유병민, & 차승봉. (2015). 페이스북 활용 수업에서 대학생이 인식한 실재감이 학습몰입경험에 미치는 영향. *농촌지도와 개발*, 22(3), 321-332.
20. 백부천. (2013). 농업계 고등학교 교사의 e-러닝 리더러시, e-러닝 효능감, 사회적 지원 및 방해요소가 e-러닝 이용의도에 미치는 영향. 건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1. 신소영, & 권선영. (2014). 진로결정과 자기주도학습, 학습몰입, 학습성과 인식의 관계 구조분석.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4(7), 167-185.
22. 신선임, & 김계현. (2012). 진로결정과정에서 지각된 진로장벽의 매개효과 검증: 예언변인과의 비교를 통하여. *상담학연구*, 13(4), 1663-1677.
23. 오선영. (2012). 청소년의 내적·외적 요인이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 자아존중감과 성취동기의 매개역할을 중심으로. 원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4. 오선욱. (2001). 초등학교의 성격유형에 따른 사회적 지원과 자기효능감과의 관계. 건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5. 유소연. (1993). 자신이 지각한 부모와의 관계가 지각된 사회적 지지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6. 유수복. (2013). 대학생의 진로장벽과 사회적지지가 진로자기효능감과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충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7. 윤광현. (2013). 특성화고등학생에 대한 사회적 지원이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영향과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조절효과: 대구·경북지역 특성화고생을 중심으로. *산업교육연구*, 27(4), 19-39.
28. 윤미경. (1997). 청소년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와 자아존중감간의 상관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9. 이학식, & 임지훈. (2008). *SPSS 14.0 매뉴얼*. 서울: 법문사.
30. 조명실. (2007). 청소년의 자아정체감, 사회적지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진로성숙과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31. 조명실, & 최경숙. (2007). 후기 청소년의 자아정체감, 사회적지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성숙 및 진로준비행동의 관계모형 검증. *상담학연구*, 8(3), 1085-1099.
32. 주석진. (2013). 청소년의 직업가치가 진로성숙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 잠재성장 모형을 적용하여. 대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33. 천성수. (2012). 사회적 지원에 따른 직무스트레스와 조직유효성과의 관계: 충청남도지역 구급대원을 중심으로. 호서대학교 박사학위논문.
34. 최용성, & 최광성. (2000). 사회적 지원 효과의 구조적 관계 분석에 관한 일 연구. *사회문제*, 6(2), 1-14.
35. 최은영. (2011). 대학생의 진로결정유형 요인 분석. 원광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36. 한수현. (2003). 사회적 지지와 진로태도성숙 및 진로미결정과의 관계. 홍익대학교 석사학위논문.
37. 홍현경. (2012). 자기 효능감이 직무 착근도, 혁신행동과 조직시민행동에 미치는 영향: 서울시내 특1급 호텔 근무형태에 따른 조절효과 중심으로. 세종대학교 박사학위논문.
38. 한정환. (1993). 자기효능감에 관한 연구동향과 문제. *한국심리학회지*, 12(1), 81-97.
39. Bandura, A. (1977). Self-efficacy: Toward a unifying theory of behavioral change. *Psychological Review*, 84, 191-215.
40. Bandura, A. (1982). Self-efficacy mechanism in human agency. *American Psychologist*, 37(2), 122-147.
41. Betz, N. E. (1992). Career assessment: A review of critical issues. In S. D. Brown & R. W. Lent (Eds.), *Handbook of counseling psychology* (pp.453-484). New York: John Wiley.
42. Betz, N. E., & Vuyten, K. K. (1997). Efficacy and outcome expectation influence career exploration and decidedness. *The Career Development Quarterly*, 46, 179-189.
43. Cobb, S. (1976). Social support as a moderator of life stress. *Psychosomatic Medicine*, 38, 300-314.
44. Ginzberg, E., Ginsburg, S. W., Axelrad, S., & Herma, J. L. (1951). *Occupational choice: An approach to a general theory*.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45. Hackett, G., & Betz, N. E. (1981). A self-efficacy approach to the career development of woman.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18, 326-339.
46. House, J. S. (1981). *Work stress and social support*. Reading, UK: Addison Wesley Publishing Company.
47. Dati, I., & Levin, N. (2014). Counseling for career decision-making difficulties: Measures and methods. *The Career Development Quarterly*, 62(2), 98-113.
48. Kelly, K. R., & Lee, W. C. (2002). Mapping the domain of career decision problems.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41, 302-326.
49. Lin, N., Ensel, W. M., Simeone, R. S., & Kuo, W. (1979). Social support, stressful life and illness: A model and an empirical test.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28, 108-119.
50. Park, S. Y. (2009). An analysis of the technology acceptance model in understanding university students behavioral intention to use e-learning. *Educational Technology & Society*, 12(3), 150-162.
51. Krumboltz, J. D. (1982). Behaviors associated with good and poor outcomes in a stimulated career decision.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21(3), 349-358.
52. Rogers, M. E., Creed, P. A., & Creed, A. I. (2008). The role of personality in adolescent career planning and exploration: A social cognitive perspective.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73, 132-142.
53. Thoist, P. A. (1982). Conceptual Methodological, and Theoretical Problems in Studying Social and Person Control.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24, 145-159.
54. Tolbert, E. L. (1980). *Counseling for Career Development* (2nd ed.). Boston: Houghton Mifflin.
55. Taylor, K. M., & Betz, N. E. (1983). Applications of Self-efficacy theory to the understanding and treatment of career indecision.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22, 63-81.
56. Vealey, R. S. (1986). Conceptualization of sport-confidence and competitive orientation: Preliminary investigation and instrument development. *Journal of Sport Psychology*, 8, 221-246.
57. Wood, R. E., Mento, A. J., & Locke, E. A. (1987). Task complexity as a moderator of goal effects: A meta-analysis.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72, 416-425.
58. Weiss, R. S. (1974). *The provisions of social relationships*. In I. Rubin (Eds.), *Doing unto others*.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59. Zhou, J. (2015). Core self-evaluation and career decision self-efficacy: A mediation model of value orientation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86, 450-454.

Received 16 November 2015; Revised 07 December 2015; Accepted 13 December 2015



Dr. Byeong-Min Yu is a Professor of Department of Educational Technology and a director of Center for Teaching and Learning in Konkuk University, South Korea. His research interests are Rural education accreditation, technology-based education, and instructional systems design.

Address: (143-701) 120 Neungdong-ro, Gwangjin-gu, Seoul Republic of Korea.

E-mail) basseryu@konkuk.ac.kr

phone) 02-2049-6017



Dr. Hye-Jin Park is a Research Professor Faculty Fundamental Education in Gangneung-Wonju National University, South Korea.

Her research interests are teaching and learning theory, distance education, and instructional systems design.

Address: (210-702) 7 Jukheon-gil, Gangneung-si, Gangwon-do Republic of Korea.

E-mail) phj4858@gwnu.ac.kr

phone) 033-640-1668